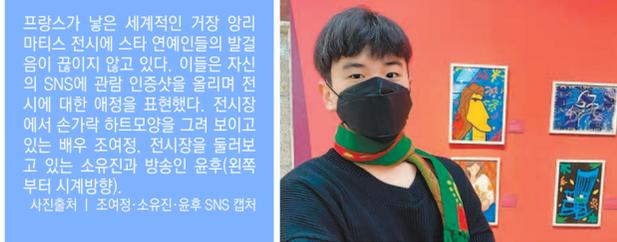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전시회 찾는 스타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거장 앙리 마티스 전시에 스타 연예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SNS에 관람 인증사를 올리며 전시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전시장에서 손가락 하트모양을 그려 보이고 있는 배우 조여정,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소유진과 방송인 윤후(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출처 | 조여정·소유진·윤후 SNS 캡처

'예술적 영감을 주는 공간' 인증샷 릴레이

"나는 항상 내 노력을 숨기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이 내가 작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결코 추측하지 못할 정도로 내 작품이 불날의 가벼운 기쁨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다(앙리마티스)" - 조여정 인스타그램

배우 박기웅 조여정 소유진, 가수 조권과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꼬복자' 유정 ... 대한민국 스타들이 앙리 마티스와 사랑에 빠졌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에 스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조여정은 전시를 관람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시장 사진과 함께 마티스의 어록을 소개했다. 소유진도 딸과 함께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배우이자 가수 양동근은 전시장을 방문해 자녀들을 어린이 미술교육 전문가인 조이뮤지엄에서 진행하는 키즈 아틀리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도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많은 스타 연예인들이 마티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있다.

단순 관람을 넘어 전시와 함께 한 스타들도 많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정재형은 음악 디렉터를 맡아 전시를 위해 신곡 2곡을 작곡했다.

서정적인 피아노 멜로디를 더한 인트로 영상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튜디오 아택이 마티스의 독특한 컬러를 살려낸 미디어아트 '컬러 오브 마티스'에서는 마티스가 살아있던 시절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의

배우 조여정·소유진 등 SNS에 업로드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음악 디렉팅 오디오 가이드 '바이브'서 무료 제공 스타·예술가들 오마주 작품도 볼거리 예술의전당서 4월10일까지 관람 가능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오디오 도슨트도 많아 관람객을 맞이한다. 그의 육성이 담긴 오디오 가이드는 네이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바이브'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배우 박기웅은 전시의 네이버 라이브 쇼핑 진행을 맡아 45만 명 동시간 시청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방영된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 전시장에 마련된 '마티스 되어보기' 코너에서 드로잉 실력을 뽐내는 등 미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브레이브걸스 유정과 가수 조권 신용재 장승현 강혜련, 방송인 윤후, 영화배우 김가은, 패션모델 이현화 등 16명의 스타, 예술가들이 참여한 '오마주 투 마티스' 프로젝트도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마티스의 작품을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으로 재해석해 전시장 로비에서 선보였다. 조권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마주 투 마티스'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자신의 작품 'I AM'을 제작하게 된 작업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스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비깅(B.kkal) 집시(zipcy), 3D 아티스트 박태훈, 가수 겸 유튜버 레오 천, 드랙 아티스트 나나영통킴, 화가 겸 여행작가 김몰길, 타투이스트 안리나도 참여했다.

동아일보,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언어소시에이즈, KBS미디어가 주최한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전시는 4월 1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제3~4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잠이든 남자



JAZZ-컬 던지는 사람

'행복의 화가' 앙리 마티스의 예술세계



앙리 마티스는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나 넘기면서도 예술혼을 끊임 없이 불태운 인간승리의 아티스트였다. 마티스는 종종 자신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의 작품 '조각하는 앙리 마티스'.

장르의 경계를 탈피한 것 아웃 20세기 시각예술에 큰 발자취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 앙리 마티스(1869~1954)는 '야수파의 창시자', '행복의 화가'로도 불린다. 그는 드로잉과 판화를 통해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과 형태를 만들어낸 '선의 연금술사'였으며 장르의 경계를 탈피한 것 아웃과 시대를 앞서 간 아트 북 디자인, 일러스트 등을 통해 20세기 그래픽 아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래픽 아티스트이기도 했다. 데이비드 호크니, 제스퍼 존스, 제프 쿤스 등 수많은 작가들이 마티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티스는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나 넘기면서도 예술혼을 불태운 인간승리의 아티스트였다. 1941년 심이지장 암 수술 이후 두 차례의 폐색전증을 이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는 병상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수술 부작용으로 위하수증을 앓게 되면서 허투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자 육체적으로 힘이 덜 소요되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북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했다.

보들레르 시집 '악의 꽃', 피에르 드 통사트와 찰스 드 오를레앙, 루이 아라공 시집의 일러스트가 그의 손끝에서 완성됐다. 18년에 걸쳐 이루어진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은 그의 예술 타임라인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러스트 작품들은 20세기 시각예술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나는 사물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사물간의 차이점을 그린다(앙리 마티스)". 양형모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pe@donga.com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 냉방·난방 성능이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납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